## **Electronic and Magnetic Structure Calculations of Diiron Enzymes**

## Key Taeck Park\*

Department of Nanoelectrophysics, Kookmin University, Seoul 136-702, Korea

(Received 8 July 2015, Received in final form 29 July 2015, Accepted 30 July 2015)

We have studied electronic and magnetic structure of 2 kinds of diiron molecules using OpenMX method based on density functional method. The calculated density of states of diiron-2 is similar with that of diiron-4 because of equal number of 6 ligand atoms. The calculated total energy with antiferromagnetic spin configuration is lower than those of ferromagnetic configurations for both of them. The exchange interaction J of diiiron-4 between Fe<sup>+3</sup> atoms is one order larger than that of diiron-2, and the calculated J matches well with the experimental one. That comes from the short distance of Fe-O and the high O 2p energy levels. It derives a strong super exchange interaction. The angle of diiron-4 between Fe atoms is bigger than that of diiron-2. It also derives a strong super exchange interaction because of the  $\sigma$ -bond between Fe and O atoms.

Keywords : density functional method, molecular magnet, electronic structure calculation

# 이중 철 효소의 전자구조 및 자기구조 계산

#### 박기택\*

국민대학교 나노전자물리학과,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-1, 136-702

(2015년 7월 8일 받음, 2015년 7월 29일 최종수정본 받음, 2015년 7월 30일 게재확정)

Fe 원자 2개를 포함한 2종류의 이중 철 효소의 전기구조 및 자기적 성질을 제1원리의 범밀도함수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. 계산 된 결과, 전자구조는 주위 6개의 배위 원자로 인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. 총 에너지 계산에서는 두 종류 모두 반 강자성적 상호작용이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. 계산 된 Fe<sup>+3</sup> 원자 사이의 교환상호작용 크기는 diiron-4가 diiron-2보다 한 단위 큰 값을 얻었고, 실험과 잘 일치하였다. 이 원인은 diiron-4가 더 가까운 Fe-O 원자거리를 가지고 있었고, Fe 사이 산소 매 개 원자의 2p 준위가 높아 강한 초교환상호작용을 일으켰다. 또한, 직각에 가까운 diiron-2 Fe-O-Fe 각도보다 커서 Fe-O의 강한 σ 결합으로 인한 초교환상호작용의 결과이다.

주제어 : 범밀도함수법, 분자자성체, 전자구조계산

### I.서 론

두 Fe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복합체와 이와 연관 된 단백 질분자는 다양한 생리학적 현상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[1]. 2004년 Yoon과 Lippard는 새로운 Fe 원자로 이루어진 효소들을 합성하여 발표하였다[2]. 그러나 Fe 원자 분자복합 체의 자기적 상태와 전자구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 며, Fe 원자를 연결하는 배위원자에 따른 자기적 상호작용은 이해되지 않고 있다. 또한 물리학적으로 전이금속산화물에서 산소를 매개로 한 전이금속 사이의 기본적인 자기 상호작용 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이런 분자자성체의 연구는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. 이전 발표한 두 Mn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자 성체[3]의 자기적 특성과 전자구조를 비교하여 이에 따른 특 성을 밝히려 한다.

전이금속산화물 결정(FeO, Fe<sub>2</sub>O<sub>3</sub> 등)의 경우 예전부터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[4-7]. 그러나 실험의 경우 불순물, 산소결함 등에 의한 시료의 자기적, 광학적 실험의 어려움이 있었고, 다양한 구조 및 원자 치환에 제한이 많이 있었다. 분 자자성체의 경우 순수한 1차원, 2차원구조의 시료제작, 배위 자 분자의 치환에 의한 전자 및 정공 주입, 전이금속 치환에 의한 다양한 전이금속산화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. 또한 이론적 연구에서 전이금속 사이의 스핀 및 궤도 상호작용을 몇 개의 전이금속만을 취급하여 간단히 할 수 있어 앞으로

<sup>©</sup> The Korean Magnetics Society. All rights reserved. \*Corresponding author: Tel: +82-2-910-4755, Fax: +82-2-910-4728, e-mail: key@kookmin.ac.kr

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이다. 이러한 연구가 전이금속 사 이의 배위원자를 매개로 한 기본적 초교환상호작용(superexchange interaction), 이중교환상호작용(double-exchange interaction) 및 원거리의 자성원자 간의 자기상호작용을 이해 하는데 기초가 되리라 생각한다.

두 Fe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diiron 효소는 Fe +3가를 가 지고 있고, 주위의 산소원자가 8면체를 이루고 있어 Fe<sub>2</sub>O<sub>3</sub> 결정과 유사한 전자구조 및 자기구조를 가지리라 예상된다. 그러나 결정과는 달리 소수의 배위자 원자에 둘러싸여 있어 전자구조와 자기적 성질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.

이러한 기본적 물리적 성질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합성 된 2종류의 diiron[2]의 제1원리의 전자구조 계산을 하였다. 이에 대한 Fe 원자의 전자구조를 구하였고, 전자구조의 특성 을 Mn<sup>+2</sup> 분자자성체와 비교하였다. 자기특성을 알기 위해 Fe 스핀배열에 따른 총 에너지를 계산하여 전이금속 원자 간의 교환상호작용의 크기를 연구하였다.

### II. Diiron 구조와 계산방법

Fig. 1(a)와 (b)에 분자구조를 간략히 각각 표시하였다. 최 종 합성된 diiron은 2종류이며 원 논문[2]에서 2, 4로 분류하 였다. Fig. 1(a)는 diiron-2이며 Fig. 1(b)는 diiron-4의 분자 구조이다.

Diiron-2는 2개의 Fe 원자를 중심으로 182개의 O, N, C, H, F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. Fel 원자 주위에는 4개의 O 원자와 2개의 N 원자가 팔면체를 이루고 있으며, Fe2 원자 에는 6개의 O 원자가 팔면체를 이루고 있다. Fel-O(N) 사이 의 평균거리는 2.033 Å Fe2-O 사이 거리는 2.007 Å이다. 두 Fe 원자는 2개의 O 원자를 매개로 하여 연결되어 있는데, 사 잇각은 100°(Fel-O2-Fe2)와 98°(Fel-O4-Fe2)로 사각형을 이 루고 있다. 그리고 산소와 탄소 원자가 고리 모양으로 잡아 주고 있다(Fel-O-C-O-Fe2). Fel-Fe2 사이의 거리는 2.996 Å 로 꽤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.

Diiron-4는 2개의 Fe 원자를 중심으로 197개의 O, N, C, H, F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. Fel 원자 주위에는 5개의 O 원자와 1개의 N원자가 팔면체를 이루고 있으며, Fe2 원자에 는 4개의 O 원자와 2개의 N 원자가 팔면체를 이루고 있다. Fel-O(N) 사이의 평균거리는 2.062 Å Fe2-O 사이 거리는 2.097 Å이다. 2개의 산소 원자로 연결된 Diiron-2와 달리 두 Fe 원자는 1개의 O 원자를 매개로 하여 연결되어 있으며, 사 잇각은 140°(Fel-Ol-Fe2)로 체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. 그리 고 산소와 탄소 원자가 고리 모양으로 잡아주고 있다(Fel-O-C-O-Fe2). Fel-Fe2 사이의 직접거리는 3.343 Å로 diiron-2 보다 멀리 위치하고 있다. 그러나 산소를 매개로 한 Fel-Ol-



**Fig. 1.** (Color online) (a) The molecular structure of diiron-2. (b) The molecular structure of diiron-4.

Fe2 거리는 3.557 Å로 diiron-2보다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(3.903, 3.966 Å).

이 계산은 범밀도함수법(density functional method)[8]에 기반을 두고 국소스핀밀도근사(local spin density approximation)하에 계산하였으며, linear combination of localized pseudoatomic orbitals(LCPAO) 방법으로 OpenMX 패키지[9] 를 이용하였다. Fe의 pseudopotential의 차단(cut-off) 반경은 8.0 a.u., O, C, F, H는 5.0 a.u.하였으며 수치적분에 에너지 차단은 150 Ry로 하였다. 차단 에너지를 250 Ry까지 올려 에 너지 차이를 계산하였으나 150 Ry로 계산한 값과 동일하였다. 기저함수는 Fe의 경우 s는 3개, p, d는 2개, f는 1개로 하였으며, O, C, H, F 원자는 s, p 2개 d 1개로 계산하였다. pseudo-atomic localized basis 함수[10,11]와 norm-conserving pseudopotential 법[13]을 이용하였다. 이 방법은 나노튜브 및 클러스터 계산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,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. exchange-correlation energy는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(GGA) 방법[12]으로 계산하였다.

전이금속산화물의 경우 강상관관계물질(strongly correlated material)로 분류되어 결정의 경우 국소밀도근사에서는 에너 지간격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[14].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DA+U 방법[15]을 이용하여 이 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. Fe 3d의 U 값은 결정의 경우 4~6 eV[6, 7]로 알려져 있으나, 이 분자의 경우 정확히 알 수 없어 4, 6, 8 eV로 각각 계산하였고, 산소와 질소 원자의 2p 궤도에도 같은 U 값을 사용하였다[16].

#### III. 결과 및 논의

스핀배열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, 모든 원자가 같은 같은 스 핀방향을 가지는 강자성(FM), 한 전이금속 스핀은 up 다른 전이금속 스핀은 down 상태인 반강자성(AFM) 형태의 총 에 너지를 계산하였다.

Diiron-2 계산결과, GGA 계산에서 반강자성 상태가 136 meV, LDA+U 계산 결과 40~14 meV 안정됨을 보였으며, 이 것은 Table I(a)에 FM 상태 에너지를 기준으로 나타내었다. Diiron-4의 경우에도 반강자성 상태가 안정되며 diiron-2에 비 해 한 차수 더 큰 에너지 차를 보인다. GGA에서 786 meV, LDA+U에서 233~438 meV 계산되었다. Table I(b)에 총 에너지를 표시하였다. 결정 Fe<sub>2</sub>O<sub>3</sub>는 여러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이에 따른 다양한 자기구조 현상을 보인다. 저 온에서는 반강자성 자기구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, diiron-2, 4 또한 실험에서 반강자성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, 계산된 결과도 반강자성 임을 보여주고 있다.

**Table I.** The calculated total energies (meV) and exchange parameters  $(cm^{-1})$  for diiron 2(a) and 4(b). We set the FM energy to zero.

(a)	GGA	U = 4 eV	U = 6 eV	U = 8 eV	Exp
FM	0	0	0	0	
AFM	-136	-40	-24	-14	
J	-88	-26	-15	-9	-14
(b)	GGA	U = 4 eV	U = 6 eV	U = 8 eV	Exp
FM	0	0	0	0	
AFM	-786	-438	-315	-233	
J	-507	-283	-203	-150	-234

Diiron-2와 4의 자기배열에 따른 총 에너지 차이는 결정구 조에 기인 함을 보여준다. Diiron-2는 Fe 원자가 산소 원자 를 통한 2개의 연결고리(Fe1-O2-Fe2, Fe1-O4-Fe2)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. 사잇각은 직각에 가까운 평면을 유지 하고 있다. 반면에 diiron-4는 1개의 산소원자를 연결고리로 하여 체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자기상호작용에서 차이가 나 고 있다.

자기적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Fe 원자 사이의 교환상 호작용의 크기를 각 스핀상태의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 하였다.

 $\mathbf{E} = -J \, \boldsymbol{S}_1 \cdot \boldsymbol{S}_2$ 

여기서 *J*는 Fe1-Fe2 사이의 교환상호작용 크기이며, S는 스 핀 크기(± 5/2)이다. 각 스핀 상태에 따른 계산결과 위의 총 에너지로부터 *J* 값을 계산하여 Table I에 표시하였다. 일반적 으로 GGA 계산결과로 얻은 *J* 값은 실험치보다 큰 값을 보 여준다. LDA+U 계산결과는 GGA 결과의 1/2~1/10 정도의 값을 보여주었다.

Diiiron-2의 4.2 K 뫼스바우어 분광학실험[2]에서 Fe는 isomer shift δ=0.45 mm/s로 +3 이온가를 보여주고, 온도변 화에 따른 자기감수율(magnetic susceptibility)실험으로 얻은 J의 값은 -14 cm<sup>-1</sup>이다. Table I에서 U=4~6 eV 사이 J 값 이 실험치와 잘 맞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 FeO와 Fe<sub>2</sub>O<sub>3</sub> 결 정에서 계산 된 U는 약 4 eV 정도이다[6, 7]. 일반적으로 분 자의 경우 보다 큰 U 값을 가지고 있어, 이와 같은 계산된 결과는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. Diiron-4의 경우도 실험결과 *J*는 -234 cm<sup>-1</sup>로 U=4~6 eV 계산결과와 일치 함 을 보여준다.

Diiron 경우 Fe 원자는 +3가의 이온가를 가져 3d 에너지 준위에 5개의 전자가 차게 된다. 원자 내에서 교환상호작용 (exchange interaction)에 의해 up-spin 상태와 down-spin 상 태로 나뉘어져, Hund 법칙에 의해 5개의 전자가 up-spin 상 태를 모두 채우게 된다. 일반적으로 결정에서는 주위 산소원 자의 결정장(Crystal field)에 의해 소위 말하는 eg, t2g 에너 지 준위로 분리되며, t2g가 eg보다 낮게 있게 된다.

Fig. 2에 AFM상태에서 LDA+U(U=4 eV)로 계산한 diiron-2의 Fe와 Fe사이 O원자의 Partial Density of States(PDOS) 를 표시하였다. 전자로 채워진 준위는 Fe와 O 원자가 강하게 결합된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있다. 채워지지 않은 Fe 준 위는  $e_g$  준위( $x^2$ - $y^2$ ,  $3z^2$ - $r^2$ )가  $t_{2g}$  준위(xy, xz, yz) 보다 높은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다. HOMO-LUMO 에너지갭은 0.75 eV이다.

Fig. 3에는 diiron-4의 계산한 PDOS를 표시하였다. diirion-2 와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나, Fe 사이의 산소원자 에



**Fig. 2.** The calculated partial density of states of diiron-2 with LDA+U method. The solid and dotted line represents up and down spin state, respectively.



**Fig. 3.** The calculated partial density of states of diiron-4 with LDA+U method.

너지 준위가 더 높은 상태를 보여준다. 특히 연결된 고리 사 이의 O1 원자는 Fe 원자와 강하게 결합된 DOS를 보여준다. HOMO-LUMO 에너지갭은 1.67 eV로 훨씬 크다. PDOS를 보면 diiron-4가 내부 교환상호작용이 큰 것을 보여준다. 이 것은 짧은 Fe-O 거리로 인하여 전하의 수축으로 인한 내부 교환에너지의 증가로 더 큰 HOMO-LUMO갭을 보여준다.

위의 총 에너지 계산으로 구한 Fe 원자 사이의 교환상호작 용 J의 크기는 diiron-4가 diiron-2보다 한 단위 더 큰 교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. 교환 상호작용의 크기는 공유결합의 크 기(t<sub>pd</sub>)의 제곱에 비례하고 전이금속 3d와 산소 원자 2p의 에 너지차(ΔE)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.

$$J \sim \frac{\left| t_{pd} \right|^2}{\left( \Delta E \right)^2}$$

Diiron-4가 훨씬 큰 교환상호작용을 가지는 이유는 세 가지 로 생각할 수 있다. 첫째 Fe 원자 사이를 매개하는 산소원자 의 거리가 가까워서 강한 공유결합(*t<sub>pd</sub>*)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(diiiron-2 평균거리 3.557 Å, diiron-4 평균거리 3.935 Å). 이 것은 Fig. 3에서 O1 PDOS에서 잘 보여준다. 두 번째 Fe 3d와 산소 2p 에너지 차(ΔE)가 diiron-4가 작음을 보여준 다. Fig. 2, 3에서 diirion-4의 O의 2p 준위가 훨씬 위에 있 음을 보여준다. 세 번째는 Fe-O-Fe를 연결하는 사잇각이 100°를 이루고 있는 diirion-2보다 diiron-4는 140°를 이루고 있어 강한 σ 결합을 통한 반강자성 상호작용이 큰 것을 보여 준다.

## IV. 결 론

Diiron의 전자구조와 자기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제1원리의 전자구조 계산을 하였다. 그 결과 총에너지 계산에서 GGA, LDA+U 계산 모두 결정상태와 같은 반강자성(AFM) 상태가 같은 스핀 배열을 가지는 강자성(FM) 상태보다 낮은 에너지 를 가지고 있었다. 스핀배열에 따른 총에너지 결과로부터 Fe 원자 사이의 교환상호작용 J의 크기를 구하였다. 구한 J 값 은 diiron-4가 diiron-2보다 한 단위 큰 값을 보여주었고, 실 험과 잘 일치하였다. 이러한 이유는 짧은 Fe-O 거리로 인한 강한 공유결합과 매개하는 산소원자의 2p 에너지가 Fe 3d 준위와 가까워서 강한 초교환상호작용을 일으킨다, 또한, Fe-O-Fe 사잇각이 커서 강한  $\sigma$  결합에 의한 반강자성 상호작용 이 초교환상호작용에 기인 하였다.

#### References

- K. N. Ferreira, T. M. Iverson, K. Maghlaoui, J. Barber, and S. Iwata, Science **303**, 1831 (2004).
- [2] S. Yoon and S. J. Lippard, J. Am. Chem. Soc. 126, 2666 (2004).
- [3] K. Park, J. Korean Magn. Soc. 24, 97 (2014).
- [4] T. M.Wilson, Int. J. Quantum Chem. IIIS, 757 (1970).
- [5] K. Terakura, A. R. Williams, T. Oguchi, and J. Kübler, Phys. Rev. Lett. 52, 1830 (1984).
- [6] G. Rollmann, A. Rohrbach, P. Entel, and J. Hafner, Phys. Rev. B69, 165107 (2004).
- [7] N. J. Mosey, P. Liao and E. A. Carter, J. Chem. Phys. 129, 14103 (2008).
- [8] P. Hohenberg and W. Kohn, Phys. Rev. 136, 864 (1964).
- [9] www.openmx-square.org.
- [10] T. Ozaki, Phys. Rev. B 67, 155108 (2003).
- [11] T. Ozaki and H. Kino, Phys. Rev. B 69, 195113 (2004).
- [12] J. P. Perdew, K. Burke, and M. Ernzerhof, Phys. Rev. Lett. 77, 3865 (1996).

- 110 -

- [13] N. Troullier and L. J. Martine, Phys. Rev. B 43, 1993 (1991).
- [14] K. Terakura, T. Oguchi, A. R. Williams, and Kübler, Phys. Rev. B 30, 4734 (1984).
- [15] M. J. Han, T. Ozaki, and J. Yu, Phys. Rev. B 74, 045110

(2006).

[16] C. Cao, S. Hill, and H. Cheng, Phys. Rev. Lett. 100, 167206 (2008).